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1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원문] 불신보편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切同) 광대원운항불진(廣大願雲恒不盡) 왕양각해묘난궁(汪洋覺海妙難窮) 위광편조십방중(威光遍照十方中) 월인천강일체동(月印千江一體同) 사지원명제성사(四智圓明證聖士) 본입법회리군생(眞臨法會利群生)

[번역] 부처님 몸은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와 매 한가지네. 크고도 넓은 원력구름은 항상 다함이 없고 한없이 넓은 깨달음의 바다 그 끝이 아득하네. 위세의 빛은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고 천강에 새긴 천개달빛은 오직 한 가지. 네 가지 지혜 꿰뚫어보는 모든 성현들이 서둘러 법회에 오셔서 중생에게 이득을 주시네.

[선해(禪解)] 법주사는 나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가 서려 있는 곳이다. 나의 은사이었던 금오 스님께서 사리각에서 열반한 곳이기도 하며, 내가 한 때 재무국장 소임을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요즘에도 틈만 나면 법주사로 발길을 돌린다.

법주사의 봄은 느릿느릿 온다. 속리산에는 꽃다지, 제비꽃, 복수초, 벌레, 송나물, 양지꽃 등 예쁜 꽃들이 지천이다. 뿐만 아니라 가을 단풍은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와서 불을 지피다가 일시에 사그라진다. 해마다 단풍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기 때문에 언제나 봄비는 곳이 법주사다. 그래서 한국의 사찰하면 법주사를 결코 빼놓을 수가 없다.

법주사의 명칭 속에는 부처님의 깊은 법(法)의 정신이 숨겨져 있다.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 천축으로 건너간 의신(義信) 스님은 그곳에서 경전을 얻어 귀국, 나귀에 싣고 속리산으로 들어가 신라 진흥왕 때 이 절을 창건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법이 안주할 수 있는 탁속(脫俗)의 절이라는 의미에서 법주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러나 법주사의 정신적 지주가 된 미륵신앙(彌勒信仰)이나 법상종(法相宗)의 유식사상(唯識思想)은, 해공왕 때 이 절의 중흥에 크게 기여한 진표(眞表) 스님과 그의 제자 영심(永深) 스님에 의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 이후 신라 성덕왕 때 중수하였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석물(石物)은 모두 이 때 만

들어진 것이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수를 하여 현존하는 목조건물은 모두 조선 후기의 것이다.

경내에는 국보 55호인 법주사 팔상전을 비롯하여 국보 5호인 쌍사자석등, 국보 64호 석련지와 보물 15호인 사천왕석등, 보물 216호 마애여래의상 등이 있으며 원통보전(圓通寶殿),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 사천왕문, 회경보살상(喜見菩薩像), 복천암 수암화상탑(福泉庵秀庵和尚塔), 복천암 학조동공화상탑(學祖燈谷和尚塔) 등의 지방문화재가 있다.

이 밖에 대웅보전·조사각(祖師閣) 일주문(一柱門) 홍전문(紅箭門) 대종각(大鐘閣) 능인전(能仁殿) 석조(石槽) 수정암(水晶庵) 중사자암(仲獅子庵) 및 여러 대사의 비, 암지(庵址) 등 많은 유물이 있다. 또 조선 후기까지 35칸에 2층으로 된 이 사찰의 중심 법당인 용화보전(龍華寶殿)이 있었고, 이 전각

별되며 일반적으로 법신은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보신은 노사나불, 화신은 석가모니불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대웅전에 봉안하고 있는 삼신불은 선종(禪宗)의 삼신설을 따라 비로자나불·노사나불(盧舍那佛)·석가모니불을 봉안하는 것이 통례인데 삼신불을 봉안하고 있는 법주사는 화엄학을 중시하였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광대원운항불진 왕양각해묘난궁 : 크고도 넓은 원력구름은 항상 다함이 없고 한없이 넓은 깨달음의 바다 그 끝이 아득하네.’

이와 같이 삼세부처님의 원력은 다함없고 그 끝이 없으며 깨달음 또한 바다처럼 가히 없이 넓고 깊다. 뿐만 아니라 ‘위광편조십방중 월인천강일체동’처럼 부처님의 원력은 천강에 비친 천개 달빛이 오직 하나이듯이 그 위세 또한 말로 표현 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다.

‘사지원명제성사 본입법회리군생 : 네 가지의 지혜를 꿰뚫어보는 모든 성현들이 서둘러 법회에 오셔서 중생에게 이익을 주시네.’

석가모니불과 비로자나불 노사나불이 ‘삼신불’

일체중생의 고집멸도 지혜로 해탈하게 이끌어

안에 금색의 육장상(六丈像)이 있었다. 하지만 당백전(當百錢) 주조 명목으로 대원군에 의해 육장상은 압수되고 용화보전도 헐리게 되었다. 1989년에는 사월 초파일에 옛 용화보전 자리에는 높이 33m의 청동미륵불이 점안되어 법주사의 새로운 상징물이 되었다.

문장대도 빼놓을 수가 없다. 큰 암석이 하늘 높이 치솟아 흰 구름과 맞닿은 듯한 절경을 이루고 있어 운장대(雲藏臺)라고도 하는데 비로봉(毗盧峰)·관음봉(觀音峰)·천황봉(天皇峰)과 함께 속리산에 딸린 고봉이다. 산마루에는 등산객이 있을 수 있는 빈터가 있으며 속리산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법주사 대웅보전은 조일(朝日)전쟁 이후 건립된 것으로 계단식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운데 길은 부처님의 답도(踏道)로 조성 되었으며 위의 계단에는 연잎이 새겨져 있어 계단을 밟을 때 속세의 때를 씻어 내도록 하고 있다. 불단 안에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불과 보신불인 노사나나불, 화신불인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는데 대웅보전의 주련들은 이를 담고 있다.

‘불신보편시방중 삼세여래일체동 : 부처님 몸은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와 매 한가지네.’

부처님은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상시 어느 곳에도 존재하고 있듯이 삼세 모든 부처님도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원래 삼신불은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으로 구

그럼, 이 네 가지의 지혜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바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를 가리킨다. 즉 괴로움의 원인 곁에가 있어 그 결과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인 곁에를 자애로 바꾸게 되어 마침내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를 가진 스님들이 오늘날 곳곳에서 법회를 열어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주사 대웅보전에 새겨진 주련은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널리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름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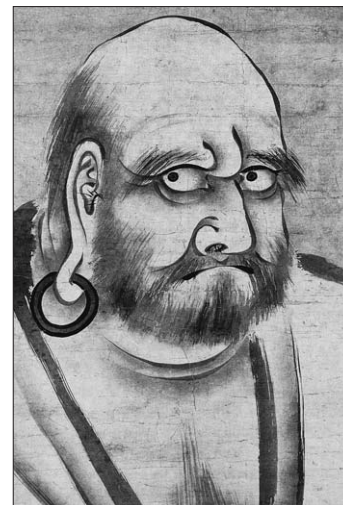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1

성품은 누구나 본래 갖춘 것

[원문] 性卽是佛 佛卽是自在人 無事無作人 若不見性 終日茫茫 向外馳求 覓佛元來不得. 성품이 곧 부처이다. 부처란 자유자재한 사람이며, 본래 갖추고 있는지라 쓸데없이 밖으로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해설]

물이 찬 기운을 만나면 얼음이 됩니다. 이 때 물과 얼음은 하나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색(色)이 곧 공(空)이요 공이 곧 색이다(色不異空 空不異色)’ 하잖아요. 그러니 모양이 있는 것과 모양이 없는 것은 물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깁니다. 이 말은 ‘물이 곧 얼음이고 얼음이 곧 물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야 자리에서의 ‘체’와 ‘용’은 물이 아니고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계(祥啓) 작 달마도(일본 南禪寺 소장).

육안으로 살고 있는 중생은 실상을 못 보고 겉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실상에서 보면 우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사선과 간화선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조사선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뛰어 나가는 것이요. 간화선은 의심을 들어서 참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하며 열불할 때 그 열불하는 놈이 곧 우주와 하나라는 얘깁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행상에 치우친 열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며 하는 열불은 관상열불이라고 하고, 소리만 내서 하는 열불을 청명열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열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실상 자리에 마음을 두고 하는 열불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의심을 하면 간화선이요, 열불을 하면 열불선이 되고, 주력을 하면 주력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생각하며 또한 의심을 하면 이것이 화두가 되고 선(禪)이 된다는 얘깁니다. 산신을 찾아가도 우주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신을 찾으면 상관이 없는데, 산신각을 찾는 분들은 밖에 있는 산신을 생각하며 찾겠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공부할 때 용(用)과 체(體)를 정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알 때 부처님 법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를 찾겠다는 것은 곧 성품을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성품을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 설명을 통해서 이해로써 깨닫기도 하는데 그것을 해오(解悟)라 합니다. 이렇게 해오라고 하고 정진을 해야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걱정하시는 일들이 많겠죠? 지금 당장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성불(成佛)은 무슨 성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본래 우주를 하나로 보고 정진을 하면 여러분들 뜻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바라지 않더라도 우주의 실상자리에 마음을 두고 가기 때문에 좋은 기운으로 업(業)도 맑아지고 탁한 기운도 정화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면 아무리 정진을 해도 남으로부터 욕됨을 받는 일인에 대해 부처님께서서는 전생의 업이 너무 무거워 수행을 해도 그 업이 남았기 때문에 남에게 욕됨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러나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이런 도리를 잘 알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성(自性)이 바로 부처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 하잖아요. 그것도 마음의 작용이죠. 그러나 그것을 부처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뇌입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번뇌인 생각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본래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이 안정도 본래는 부처입니다. 이것을 쫓고 쫓아서 분석해보면 물질이 아닙니다. 본래 자리에 들어 가면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식물도 모두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도 천으로 만든 것이지만 모두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품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두가 생명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부처를 찾으면 생명(生命) 즉, 자기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부처란 자유자재한 사람이며, 본래 갖추고 있는 지라 쓸데없이 밖으로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부처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항상 그 자리입니다. 본래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님인데 과거생으로부터 본래의 성품을 등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알고 집착하여 윤회하게 되는 업력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시시각각 변하므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보면 텅 비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지만 속는 겁니다.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즉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에 속는 겁니다.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상처 받으면서 업의 끈에 묶여 다시 윤회하게 하는 업력(業力)을 스스로 만들고, 다시 그것에 끌려가는 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영험한 돌미륵 남해 미륵암 - 대웅전 중창불사를 위한 만등불사



귀의 산보하움고,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미륵암(주지 청운)은 한 사찰로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녕과 염원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력과 원력으로 미륵암을 창건하였으나, 정성이 부족하여 아직도 부처님의 도량이 중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시봉하는 소승이 부끄러운 마음을 모아 대웅전 중창의 대원력을 발원하고 많은 신심있는 불자들의 염원 동참을 기원하면서 일인 일등 만등불사의 뜻을 높이 들었습니다. 불가의 중수 중창은 불보살님이 기뻐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절 인연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부대중의 지극한 신심이 있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정진의 노력으로 미륵암의 중창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일인 일등으로 만등의 등불을 밝혀 범계 광명하기를 기원하며, 빈자일등의 행을 지어 청정한 마음으로 지혜의 광명 얻으시길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광명의 등, 용서의 등, 관심의 등, 쾌유의 등, 성취의 등, 왕생극락의 등, 애정의 등, 인연의 등으로 함께 하소서....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합장

만등불사 발원문

“원하옵나니 불사에 동참한 불자는 병마의 고통이 여의어지이다. 지혜가 무궁 하여지이다. 자손이 효순하며 번창 하여지이다. 첩회가 순수하며 회향이 바르게 되어지이다. 날 적마다 부처님의 법 여의지 아니 하여지이다. 원하는 바가 부처님과 같이 되어지이다. 구경에 성불하여 위 없는 행복을 누리지이다.”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사바사 석가모니불.

미륵암의 돌미륵

지금은 방조여부림(방풍리)과 방조제로 인해 남해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친 풍패를 이겨냈지만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의 평안을 빌고자하는 의식은 예로부터 여전히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은 단지 바다를 상대로 하는 절대 의식에서 발전하여 개인의 안녕과 발전을 염원하는 물건리 토속신앙의 대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토속신앙의 대상이 바로 물건리 미륵암에 모셔져 있는 돌미륵인 것입니다. 미륵암 주지 청운스님은 물건리 바다 한 가운데서 현재의 미륵암으로 광명을 발원하는 두 번의 선공을 받은 후 돌섬 한 구석에 잠들어 있던 돌미륵을 찾아 미륵암 현위치로 모시기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계시대로 돌미륵을 모신 후 정성껏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어업자의 만선과 물건마을의 대소 약재는 씻긴 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물건리는 물론 삼동면 골골 흘러나가 지금은 누구나 영원에 대한 기도처로서 인식하



게 되었고, 그 소원성취 또한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돌미륵은 그 영험함을 나누어 어업자를 위한 미륵, 학업자를 위한 미륵으로 남해군민 불자 및 물건마을 불자들의 항상 성불을 이루는 영험한 미륵으로 신앙심으로 높이며, 누구나 꼭 한 가지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미륵 보살로 그 영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험함을

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돌미륵에 대한 기도는 물론이요 적절한 관리와 보존이 우선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륵암 돌미륵의 지방문화재 지정은 물건리는 물론 삼동면 주민들의 안녕과 염원처로서의 정신적 귀의처를 확인하는 절차임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불사내역

- 미륵암 한평 대 땅 갖기(개인법인설립위원의 자력)
■ 만등불사
■ 기동불사, 용머리, 부연, 주춧돌, 후불탱화, 덧집, 천불사, 대들보, 상량대, 도리랭이, 도리, 석가대, 부처님 법단, 법당문, 기와
■ 미륵 지방문화재 등록 중
■ 반야심경, 달마도 등등 각종 액자
■ 신도증 발급(4,800지) 접수, 사진(10매)



◊금강경 병풍 전사 판매

미륵암 주지 청운 합장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물건리 방조여부림 앞)
계좌번호 : 하나은행 511-910006-06204 / 농협 : 831075-51-023041 (예금주 : 미륵암)
중무소 : (055)867-0776, 2259 / fax (055)867-8009

미륵암의 신비하고 영험한 미륵보살의 원력을 체험하려 오세요!!